

38과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

예정대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온세상에 널리 퍼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완전히 죄속에 완전히 물들어 있던 저희들...그리스도의 피로 말갈게

씻기시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함가운데 사시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주님안에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때에 이 거친세상에서 악이 들끓는 이세상에서 어린 영혼들 저희들 손에

의탁하시고 길러내리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

입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사기 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1절 2절까지...

사사기 1장 1절 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늘 해야할 일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열두아들을 낳고 그리고 열두아들들 나중

에굽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후로

모세를

통해서부터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과 그리고 함께한 제 2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정보하고 그럴지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칠 족속을 모두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은 그 이후로도 여호수아 후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세운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지금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한테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처음에는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전부다 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을 이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인도하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래서 유다가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는 내용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꼭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왕정시대에도 사울에게 아말렉족속을 진멸하라 아말렉왕 아각을 살려 뒀습니다. 짐승까지 모두 다 멸절하라. 짐승도 살려뒀습니다.

하나님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자기 소견을 옳은대로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냐민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브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이죠.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는 이 때까지 베냐민자손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가나안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자기들의 생각대로 ...

자 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으니까 가나안사람들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사역

을 시키고

아 얼마나 좋으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 내용들을 보면 다 쫓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고 30절에도 보면은

스블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31절에도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흠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다 지금 32절도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게 이제 무슨이야기냐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찜이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 짝아만든 그런 신들...

예를들어서 바알신들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섬기는

그런 일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문제입니다. 원래 역사가자들은 여호수아가 BC 1406년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이고 그 이후로 약 100년이 지나서 1406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때부터 1406년부터 이제 44년이 지난이후에 BC 1050년 그

사울왕이 있을 때까지 사울왕이 죽기까지 약 얼마나?

그게 이제 350년정도 되는데, 350년간의 시대 그걸이제 사사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1400년대하고 이제 사울왕이 즉위할 때는 1050년에 그러니까 약 350년간 이 가나안땅에

왕도 없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사를 주시고 통치하는 사사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걸 이제 무정부상태다. 어떤 조직도 없고, 어떤 나라가 굳게하는 그런 상태도 없고

그렇게 사사시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왕이 필요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하면은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만을 요구했던거죠. 그래서 그렇게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로 가나안땅에 다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중에 가장 악랄한 아말렉을 사울왕에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게

진멸되지 않고 끝끝내 나중에 다윗왕도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그랬고 그 이후에 다른 왕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에서부터 괴롭혔냐하면은 그 아말렉족속들이 광야에서부터

괴롭혔던 그런 아말렉족속이 흩어져사는 큰 민족중에 하나였습니다.(11:00)

근데 이 사사기 시대들은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가나안땅에 살고 있는 원래 원주민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그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옛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생활 속에 옛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옛사람은 자꾸만 육신의 것을 요구하고 어떤 세상의 풍습과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때에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옛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는 삶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은

이 계속해서 몇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Sinning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그

일을 이방신들을 섬기는거 몰락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신상을 섬기고 그렇지 않는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재미로 또는 마음을 두고 섬기는 그것이 신이죠.

그러잖아요. 우리아이들이 아주 즐겨 마음이 빼앗겨 있는, 빼앗겨 있는 인터넷 게임도

하나의 신입니다.

그것을 다 멀하지 못한거죠. 그러니 그들이 생활이 하나님의 올바른 생활이 못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하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셔요.

그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속에 뭐가 없냐면 평강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하면서 괴로움이 오죠.

그리고 괴로움이 오고 고역이 오고 ...

이게 이제 고역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름하여 이제 징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거죠. Suffering. 고통을 준다 그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거나 우리 아이들을 주장하거나

교회가 또는 선생님이 부모님이 주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친구들이 그를 주장하고 그

친구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라는 말이 원래 뭐죠?

Serven이라는 거죠. 노예근성 또는 노예상태를 Servitude라고 말하는데 Servitude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가고있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평강가운데 기쁨가운데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갈고리에 껴여서

친구라든지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또는 뭐 안좋은거라든지 이런것들의 껴여서 계속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고역,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상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이제 즐기죠.

그러잖아요. 즐기고 그 속에 폭 빠져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하는데,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앞에 여기서 나를 건져낼 것을 탄원하게 되죠. 이게 탄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 곤고한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제 Su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탄원이라고 하죠. 돌이켜서 이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건져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범죄를 했을 때 옆에 있는 나라를 조그만 부족을 강성하게 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그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에게 팔년을 완전히 치

리하게

하고 또 그래도 또 안되면 또 에글론 왕을 일으켜서 모압 왕을 일으켜서 완전히 뭐 18년을

치리하게 하고 20년을 치리하게 하고 그리고 몇 년을 치리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고역, 징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말씀도 떠나서 부모님 뉘에도 떠나서 교회 이런 것도 떠나서

완전히 저 상태안에 매여서 사는 그럴지만 그 속에는 진짜 평강이 없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상태가 바로 고역, 징계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탄원하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죠. 그 상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역과 징계를 끝내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 자 이런 구원이라는 말이 뭐라 그래요?

Salvation, Salvation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아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

좋아가지고 뻥뻥거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구원을 하면은 구원을 하면은 뭐가 와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이제

주님안에서 평안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삶 자체가 이제 아주 폭풍이 지나가고 조용해지는

그런 Silence 평강의 상태가 오죠. 그런 다음에 그러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기가 더 강성한 강성하게 되고 또 평강가운데 이제 강성해지고 영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상태 되는 것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대로 두면 조금 더 지나면 뭐가 되느냐?

이거 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요.

그렇죠. 잊어버리게 되요.

완전히 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아이들하고 더 어울리고 뭐 하고 그럼

다시 범죄로 돌아가고 요것이 요 싸이클이 지속됩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몇 번이 지속이 되느냐? 이 사사기 총 사사기 안에 7번 지속이 됩니다.

원래 일곱이라는 숫자는 원래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 구원을 받은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이후에 무교절이 7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교절안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미 지났고 무교절에 있는거죠.

무교절안에 평생을 사는 건데 7일일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앞에 묻고 사는 삶이 아니고 사사기 사사들의 어떤 이야기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실은 왕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

입니다.

시편 50, 시편 50.....시편 58편.....

시편 어~~ 58편...

58편이 아니고 59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셀라)]

하나님이 야곱중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죠. 만왕의 왕... 왕이신 하나님

그들을 ...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왕을 우리 아이들이 잊
어버릴 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
은대로 뭐

이거는 괜찮겠지....어 자기가 좋아하는대로 재미있는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
더라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먼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21:21)

이 어른들은 어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죄많은 이세상속에서 건져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
다.

그랬잖아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별되기가 쉬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모든 삶이 추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고 또는 내가 쫓는 즐거움이 죄
를 짓는

즐거움속에 소속되어있고,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교회안에 들어와서 정말

거룩한 우리 깨끗한 우리, 우리속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사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게 쉬어요.

아이들은 뭐냐? 아이들은 원래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죠.

엄마, 아빠 무릎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잖아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같이 뽀뽀

기어다니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엄마 무릎안에 있을때는 어디를 도망갑니까? 엄마 없어도 막 그냥

세상으로 가라그래도 안가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크면서 세상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달콤한 맛들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이제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우리가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았는데... 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 소생이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랬을때에 이스마엘도 이삭만큼이나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야했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그게 쉽게 안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같은 날에 낳은 이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그럴잖아요.

완전히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바로 그다음이 되었잖아요. 뭐 형, 동생이라고 하지만

같이 태어난거죠. 같은 시기에 ...그럴잖아요.

그럼 에서와 야곱도 똑같은 자식인데도 이삭은 에서는 완전히 에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가인의 길을 갔다. 이거 완전히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전부다 천국간다...아닙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지옥가는 애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이 지옥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면 유치부와 초등부는 반드시 거처거든요.

다 거칩니다. 거의 대부분 이때까지 도망못가요.

구원을 받았든 안받았든 하여튼 뭐 말은 뭐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기도 하고 구원

안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못 도망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금 이제 부모가 엄마하고 뭐하고 그러면요. 중학교까지도 남아요.

고등학교 가면 도망갑니다. 고등학교가도 어지간하면 남아요.

대학교가거나 사회가면 완전히 도망갑니다. 아세요.

지금 고3에서, 고3에서 교제해주고 그래서 나왔던 그 아이들이 약 60명정도 되는데...

그럼 청녀회나 대학부에 붙어서 교제하고 교회에 제대로 나오는 인원은 40명도 안됩니다.

예~~알잖아요. 그 숫자로..

그 청년회들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고3에서부터 청년회갈때까지 연계가 안된다고 연계를 할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한명이라도 안놓치려고, 근데 도망갑니다.

근데 그 원인을 내가 가만히 파악해들어가 보면은 유치부부터 찾아야 해요.

예~유치부, 초등부 이때에 확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사사기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가만히 보면 중학교때나 고등학교때 구원 받으면 이

아이들은 틀림없어요.

왜?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물론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온 어른들 같은 경우도 다시 세상으로 가는 맛만 보고 가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잠시 기쁨으로, 기쁨으로 받되... 그렇잖아요.

또는 이제 그런 돌짜발에 뿌려진 씨도 있을 수 있고...또는 이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있어서 조금 자라기도하고 하다가 결국 결실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쪽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유치부 초등부에 이때에 이 때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6장, 아니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것처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까요.

야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안되겠다.

음..구원받고나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예를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학자들은요.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벌써 몇 독 한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이 예 아주 훌륭한 장수의 무기처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무기처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아주 배여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그렇게 되면...우리가 가리키는 아이들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이게 되었던 아이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 놀랄만한 음...

예를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휘트니슬리, 그 앞에 누구죠.

그...왓츠먼리...왓츠먼리도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그래도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릴때부터...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전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런 많은 책도 저술하고

하워드 팬드릭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스펀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어릴때부터,

어릴때부터 성경 속에 이속에 아주 저기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함으로써 우리가운데서 앞으로 그런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그런 법칙이

어디있어요.

전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훌륭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훌륭하지 않고는 안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동의보감을 기록한 허준 맞습니까?

예 허준 그 스승이 누구냐? 유의태라는 사람입니다. 유의태가 자기 아들도 그렇게 훌륭한

의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안됐습니다.

아들은 심보가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유의태의 아들도 나름대로는 훌륭한 의사인데...정말 우리나라 전체를 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는 허준을 만들어낸 나중에 유의태가 자기 시신을 해부하라고

허준에게 내어주죠.

자기가 자결을 하고, 피도 받아놓고 어....어느 골짜기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아주 그런

냉동실과 같은 냉장실과 같은 그런 온도 속에서 온몸을 해부하고...

유의태가 위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암 암덩어리들을 전부 해부해서 알아보게 하고 그런 의사...여러분들을 전부

해부해서...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100%다 그렇게는 믿지

않아요.

아무리해도 안되는 애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하여튼 이 교회안에서 세상으로 갈려고

하지말고 교회안에서 정말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은 확실히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교회안에서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하나님앞에 물으면서 사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범죄하는 내용이 뭘까요?

뭐 이스라엘사람들은 범죄하는 내용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자 ~~

우리가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상숭배라고해요. 우상숭배...

자 요즘에 와서 우리아이들이 얘기하는 우상숭배가 뭘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잖아요.

자 세상을 사랑하지말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게 예~~간음하는 여자...

세상을 사랑하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격리되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우와하고 거기서 또 따라가는게 아니라 그것을 이게

정복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그까지것은 짓밟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아이들이 어떤 탐심부터 시작됩니다.

탐심이나 또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것들 ... 세상에는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그런 인터넷도, 인터넷 게임도 하지 못해야 되나? 그럴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것이 예속되서 그곳에서 모든 즐거움을 나의 모든 즐거움은 스타크래프트에 있노라.

또 요즘 뭐 리 무슨 게임....리니지? 리니지....

예~~뭐 게임이 있노라.

그거는요. 완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다른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냥 짓밟고 그거 한두번 해보고 아이뭐 이런거고만...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은 틀리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또 요즘들어서 또 뭐하는 것이 간음이죠.

실제로 이게 간음이라는 것은 이성관계입니다.

요즘요. 여자남자들의 관계...요거~~

요것이 요즘, 초등학생 애들도요. 여자친구가 없다.

그럼 에이 ~~저런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남자친구 없다 그러면 에이~~그러고

자기들 세계속에선 쉽게 말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남자여자친구를 그냥 뭐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 두루 모든

남자도 내친구이고 여자도 내 친구고 같은반 친구고 이렇게 다양하게 딱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그걸 밟고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화이트데이때 뭐발렌타이데이때 뭐 못받으면 어쩌고

저쩌고 ...

다주고 다 받으면 될거 아니에요. 뭐 정 그런다면...

하여튼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것에 예속되어서 다 그러는데...뭐

아 ~ 그러면은 이방신들이 가나안의 이방인신들 다른 이방인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된다는 이거는 사사기 시대들과 똑같은 거죠.(34:08)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되면 하나님이 그 애가 구원받은 아이이면 그냥

안두잖아요. 그러잖아요.

너 왜그러냐? 계속 부모한테 얻어 터지게하고 학교에가서도 그러고...

친구들한테도 계속 친구들이 그 애를 예속시켜서 끌고다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잖아요. 똑 같아요. 개인적으로나 저기로나.

그러면은 내가 왜그러냐 어쩌고그러다가.... 아예 원래 동네가 우리 동네사람이 아닌

아이들은 가버리고...

그러죠. 또 동네가 우리동네 소속되어 구원받은 아이라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고 선생님한테 같이 그 ~~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고 뭐하고 그럴때요.

잘 해줘야되요. 그럴때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은요.

그 다른 이방 아이들의 손에서 게임의 손에서 그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는데 그때 보내는

사사가 누구냐? 바로 선생님들이예요.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못하는데...사사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을 이겼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가지고 삼천명을 죽였다. 뭐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지고 육백명을 죽였다.

그랬는데..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힘이 있어서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시면...하나님이

선생님들을 쓰시는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다시 이제 머리돌도 열심히하고 기도도잘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잘

보고 가정에서의 삶이나 학교에서의 삶도 이제 평정을 되찾고

이제 정복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서 완전히 짓밟는 생활에서 자신있게 삽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되찾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럴 때에 더욱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 징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고 그런다면은 애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게

묻는거죠.

또는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선생님들이 물었을 때에 선생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올바르게 인도하고 해야될 그 모든 것들이 책임이

있는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치부 또는 초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이렇게 잡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어렵지만 그 몸부림치고 그런 것이지 우리 선생님들이 마저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교회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물론 유치원처럼 다니는 작은 어릴 때에는 부모들이

다 데리고 갑니다. 교회를....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정도 되면 “안갈래” 안갑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가면 거의 안가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왜 다니냐면 제일 처음에

그러잖아요.

예 우리 그 제일처음에 유치부나 초등부는 엄마 손잡혀서 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완전히 친구 손잡혀서 친구따라 오고 고등학교가서는 아니면 개들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교회에서는 다른 재미를...교회와서 뭔가 재미를 느끼게 할려고 ...

재미있는 뭐를 교회에서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은 잡을라고 ...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뭐 재미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지 많이하는거예요. 아이들을 잡아놓으려고...

그런데 그런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급한 문제가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잡아해야요.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든지...또는 천국잔치를 한다든지...또는 뭐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월 한다 그럴 때... 그안에 아이들을 잡는 것이 말씀이 주가 되어야지...

무슨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것을 재미가 주가 되면 그거는 이제 안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린 속이지만 그 안에도 영혼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영혼의 갈증, 영혼의 어떤 갈망...그것이 완전히 충족이 될 때에 그들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그런걸 느낄 수 있고, 어리지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서는요.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반 수업을 할 때도 어진간해서는 장소를 주일마다 옮기면 안됩니다.

오늘은 저 놀이터로 내일은 저 계단에서 그 다음주에는 저 인덕원 초등학교에서 뭐 장소가

없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장소, 장소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부족해도 제가

여기에서 분반하시는걸 보면은 어는 한곳에 모여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쪽은 비어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서로 방해안받도록, 그리고 아이들하고 교제할 때

있잖아요. 서로 무릎을 대고 하세요. 그러면 큰소리 안해도 소곤소곤 해도 되요.

넌찍넌찍 앉으니까 안들리니까 소리지르고 옆에도 안들리니까 막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애들아 무릎교제하자.

무릎교제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릎을 대고 아이들과 동그랗게 앉으면은요.

그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는 다 들리거든요.

너무 그냥 와보면은요. 와작지껄 와작지껄 무슨 소리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겠는 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반교제는 분반은 교회학교의 꽃이다. 이 분반교제를 통해서 아이들은 변화 되고,

분반교제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각 사람을 길러내고 하는 것이 분반교제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을 그 안에다 넣어놓고 선생님들은

빠져나가는데....그러면 안되요.

자기반아이들 그속에 선생님들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들으면 안보이게 속으로 꼬집어버려요.

보이게 이렇게 때리지 말고...

특히 이제 말씀을 안듣는 그 아이는 손 딱잡고 옆에서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사랑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니 스스로는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반 아이들은 그 앞에 있고 선생님은 저 맨 뒤에서 이렇게 서있고 이러면

안됩니다.

바로 애들은 받아가지고 보낼 때까지는 애들하고 1미터 이상 떨어지면 안되요. 그러잖아요.

항상 붙어서 같이 호흡을 같이해서...
일주일동안 살 수 있는 어떤 뭐를 그 기운을 호흡을 딱 그냥 집어넣어주고...

나를 잡아서 아이들한테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령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아이속

하나하나에게 그 아이에게 합당하게 집어넣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되요.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틀림없이 변화될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좋아하게 되고

선생님들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선생님 만나기 싫어서 어떡하나?

일년 빨리갔으면 좋겠네...이러면은요.

그 일년농사는 이거는 굉장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떡해든지간에 선생님이 보면 알잖아요.

제는 나를 별로 안좋아한다. 그러면 뭐예요. 뭐 어떡해....

뇌물이라도 써야지...물질공세라도 선물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성경말씀처럼 그 애에게만 몰래 다른 애들은 몰래 조금만한 백원짜리라도 선물을 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요. 가까이 다가옵니다. 아셨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부족한 저희들 계속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은 쉼하지
만 우리

아이들은 흥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속에 더욱 주님을 알게하시
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